

세계지방자치동향



자치행정

- (한국)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사례
- (일본) 태풍 10호와 주민 전원대피: 휴가시(日向市)를 사례로
- (독일) 외국인의 참정권 보장 - 사회통합의회
-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객실키 프로젝트(Project Roomkey)”: COVID-19에 따른 노숙자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정책

태풍 10호와 주민 전원대피: 휴가시(日向市)를 사례로

개요

- 태풍 10호의 접근에 따라 중앙정부와 기상청이 지자체의 대피권고를 강조
- 주민 전원대피에 관한 지자체의 대책회의와 재해발생 전 대피의 주요 정보의 홍보
- 코로나 감염대책과 함께 다양한 대피 방법의 주지와 숙지를 지자체와 시민이 실천

「특별경보급」과 「조기의 대피로 생명을 지키는 행동」

- 2020년 9월 2일, 일본 기상청은 태풍 제10호가 향후특별경보급(중심기압 930hPa 이하, 최대 풍속 50m/s이상)으로 발달하여 6일부터 7일에 걸쳐 아미미 지방과 서일본지역에 접근 또는 상륙할 우려에 관해 보도함
- 태풍의 예보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나, 광범위한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에 관해 보도
- 기상청이 발표하는 최신 태풍정보에 유의하면서 향후 각 지방 기상대가 발표하는 조기 주의정보 및 경보·주의보 등 기상정보에 유의하고, 자신의 생명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함
- 태풍 10호의 접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9월 4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베총리는 관계 각료들에게 신속하고 알기 쉬운 정보 발신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함
- 국민에게는 빠른 대피에 유의하여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촉구함
-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위대도 구조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약 22,000명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마련함

| 표 1 | 경계레벨과의 관계

호우·홍수	
■ 호우특별경보	경계레벨5
■ 토사재해경계정보	경계레벨4
■ 호우경보·홍수경보	경계레벨3
■ 호우주의보·홍수주의보	경계레벨2

- 각지에 충분한 피난처를 확보하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대책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태세의 준비를 지시함
- 국민에게 지자체의 피난정보에 따라 조기의 대피에 유의하여 방심하지 말고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취하도록 호소함

【 표 2 】 경계레벨과의 관계각 정보에 따라 취해야할 행동과 경계레벨

호우·홍수	취해야할 행동 수칙	경계레벨
■ 호우특별경보	- 재해가 이미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권고	경계레벨5
■ 토사재해경계정보	- 지자체로부터의 대피권고에 유의 - 대피권고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대피 판단	경계레벨4
■ 호우경보·홍수경보	- 지자체로부터 대피준비, 고령자 등 대피개시 발령에 유의 - 고령자는 스스로 대피 판단	경계레벨3
■ 호우주의보·홍수주의보	- 재해정보지도에서 재해위험구역, 대피소, 대피경로를 확인	경계레벨2

경계레벨4 「대피권고」와 주민 전원대피

- 태풍 10호 접근에 따라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 휴가시의 토야시장(十屋幸平)은 시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피난 정보의 발령 및 대피소 개설
 - 대피소에서 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책의 철저, 전시청 체제의 정보 공유 및 대응 등을 지시
- 미야자키현 휴가시와 고바야시시는 태풍의 접근에 따라 호우의 우려가 고조되어, 2020년 9월 6일, 오전 8시 시내 전역에 피난 권고를 발령함
- 대피 대상
 - ▽ 휴가시 25,406 가구, 59,537명, ▽ 코바야시시 11,662 가구, 43,374명
 - 5 단계의 경계레벨 중 레벨 4에 해당하며 신속히 위험한 장소로부터 전원 철수를 촉구함



【 그림 1 】 휴가시의 재해대책본부의 회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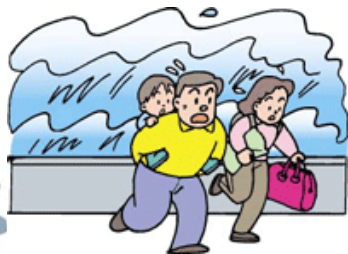
- 대피 정보 발령시의 상황과 취해야 할 행동
 - 경계 레벨3) 대피 준비·고령자 등 대피개시
 인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대피시 시간이 소요되며 고령자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대피를 시작해야 할 단계
 대피시 시간이 소요되며 지원이 필요한 자는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
 가족등은원이 필요한 사람의 대피를 지원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 자는 가족과 연락, 비상시 소지품의 준비 등 피난 준비 개시
 - 경계 레벨4) 대피 권고
 인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전주민이 대피를 시작해야 할 단계
 전주민은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
 - 경계 레벨5) 대피 지시(긴급)
 인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상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
 전주민의 대피완료 단계
 아직 대피하지 않은 주민은 즉시 대피해야 함
 대피 할 상황이 아니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행동을 취함



경계 레벨3)



경계 레벨4)



경계 레벨5)

- 대피의 사전준비
 - 재해시 사전에 대피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함
 - 대피 장소는 학교와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안전한 장소의 친척·지인의 집에 대피하는 등 여러 가지 대피방법을 준비함

- 재해정보 지도를 바탕으로 자택 등이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
 - 대피소에 도착하여 자가용에 머무는 것도 가능
 - **고층으로의 수직대피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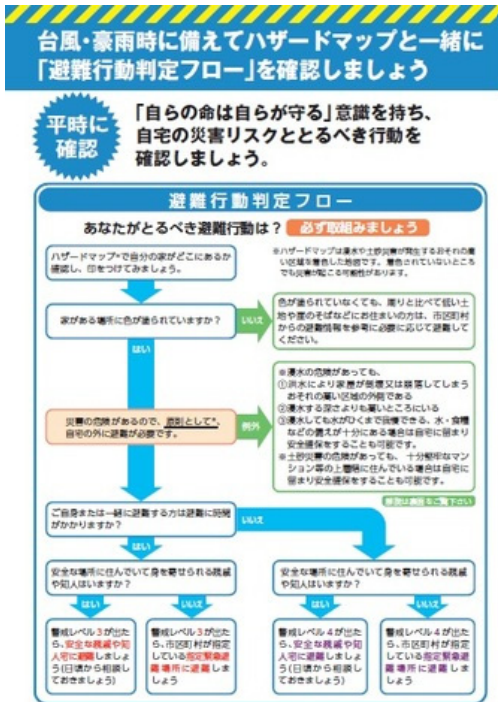


그림 2 | 대피 판단의 흐름 및 참고 정보

避難行動判定フローの参考情報

ハザードマップの見方 **必ず確認してください**

ハザードマップの見方 **もっと詳しく知りたい人向け**

警戒レベル3や4が出たら、危険な場所から避難しましょう

「避難」とは「難」を「避」けることです
安全な場所にいる人は、避難場所に行く必要はありません

避難先は小中学校・公民館だけではなく
安全な親戚・知人宅に避難することも考えてみましょう

わからないことがありましたらお住まいの市区町村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市区町村の防災ホームページ(各市区町村ホームページ)による検索に使うワークシート
<http://www.douai.go.jp/fusogai/typhoonworking/index.html>

- 대피소로 이동시 지참할 물품
 - 시청에서 준비 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한계가 있음
 -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체온계 등은 상비용품과 함께 만일의 경우를 위해 준비함
 - 마스크(수건 등), 알코올 소독액(물티슈 등), 체온계, 침구(담요 등), 방한복, 식량·음료수, 휴대용 라디오, 휴대용 배터리, 복용중의 약
- 대피소에서의 감염병 대책
 - 단수 등의 영향이 없을 경우, 자주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등 기본적인 감염 대책
 - 충분한 환기 및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대피자들 간의 공간을 확보 협조
 -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은 시가 별도로 준비한 대피장소로 이동
 - 대피소로 이동전 대피자 카드를 기입하여 지참
 - 대피자 카드 기입 내용: 입소 및 퇴소 시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거주 지자체명,

세대자명, 이동수단, 현재 체온, 2주간의 체온이상 여부, 호흡기 질환상태, 동거인의 상태, 감염확대 지역으로의 이동 이력, 밀접 접촉 여부 등

避難者カード	
入所 / 時 分	退所 / 時 分
氏名	生年月日: (歳) 電話番号:
住所	
自治会名(区名)	
世帯代表者名	
交通手段	自家用車 徒歩 送迎(タクシー等) その他
①現在の体温	℃
②2週間以内に37.5℃以上の発熱があった。	はい・いいえ
③2週間以内に息苦しさや強いだるさがある。	はい・いいえ
④2週間以内に咳・くしゃみ・鼻水・のどの痛みなどが続く症状がある。	はい・いいえ
⑤同居している方に、2週間以内に①②③の症状がある。	はい・いいえ
⑥2週間以内に感染症拡大地域や海外への移動歴がある。	はい・いいえ
⑦同居している方に、2週間以内に感染症拡大地域や海外への移動歴がある。	はい・いいえ
⑧既感染者の濃厚接触者であり、健康観察中である。	はい・いいえ
⑨次に該当する場合は○をつけてください。	負傷者・要介護者・妊産婦
⑩安否確認があった際この情報を使用することに、	同意する・同意しない

| 그림 3 | 대피자 카드

기상예보의 부정확성과 대피의 염려보다는 「안심」의 선택

- 2020년 9월 6일, 일본 기상청은 태풍 10호의 세력이 다소 약화되어, 가고시마현에 특별경보를 발표 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발표함
- 기상청의 나카모토 예보과장(中本能久)은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강한 태풍임을 강조 - 2019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태풍 15호와 19호보다 강한 세력을 지닌 채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함
- 후쿠오카 기상대의 벳푸(別府寿男) 방재조정관은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지적. 그러나 특별경보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결코 경계를 해제할 태풍이 아니었다고 강조함 - 경계의 호소에 따른 피난 및 사전준비에 따라, 큰 피해를 방지했다고 평가함
- 휴고시의 시민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기의 대피를 실시하였으며 카고시마현의 토시마村에서 카고시마시로 대피한 시민은 안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

시사점

- 필자는 동경도의 카츠시카구의 광역대피를 관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대피권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음
 - 재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주민들은 대피에 있어 주저함
 - 또한 수직대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 및 기상청의 대피권고와 지자체의 정보에 따른 대피 강조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대피 행동으로 이어짐
- 작금의 예상을 초월하는 태풍의 발생과 토사붕괴, 호우는 기존의 재해대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정보의 전달 방식과 대피 방법의 홍보가 중요함
- 지자체 주민 전원의 대피에 따라 재해 피해의 경감으로 이어짐
-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는 대피와 감염대책을 동시에 고려하여 매뉴얼을 작성, 실천하였음
- 대피지역의 피해에 따른 경험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은 안전과 안심을 중시하여 사전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출처

- 니혼테레비 <https://www.news24.jp/articles/2020/09/29/07731061.html>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ffairs/news/200906/afr2009060015-n1.html>
- 서일본신문 <https://www.nishinippon.co.jp/item/n/649673/>
- NHK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904/k10012600601000.html>
- NHK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906/k10012603141000.html>
- 일본 기상청 <https://www.jma.go.jp/jma/press/2009/02a/202009021100.html>
- 휴가시청 <http://www.hyugacity.jp/>



배 윤 통신원
(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학부 강사)